



申英順 병원



◇지역내 어린이를 위한 「사랑의 대잔치」를 매년 열고 있다.



申
英
順
원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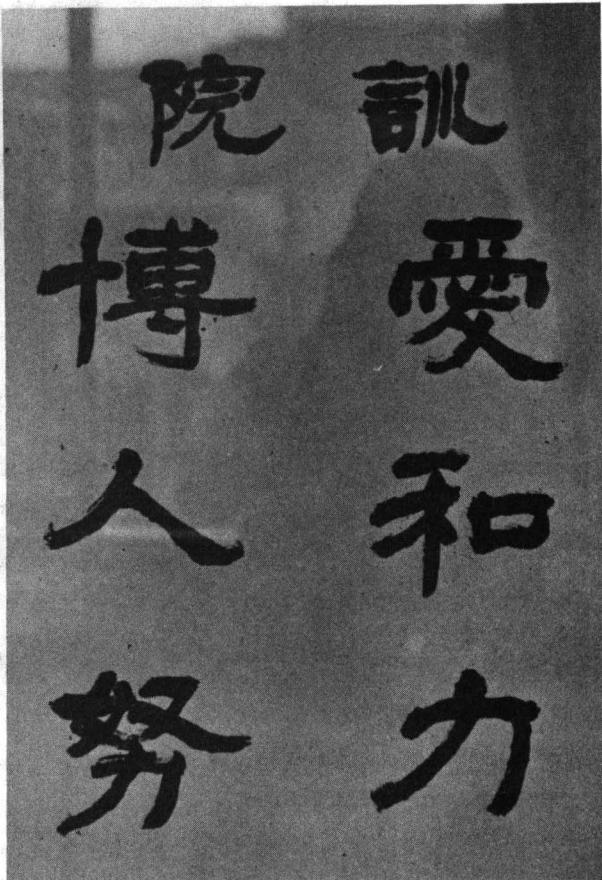
인술·친절·봉사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보건서비스와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의 선구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질높은 의료기관으로서 국민보건향상과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인술·친절·봉사의 정신으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병원이 된다」는 것이 안양시소재 신영순병원(SHIN'S HOSPITAL)의 운영목표이다.

이 운영목표와 함께 병원의 전임직원들은 「△우리는 의료인으로서의 인격과 개성을 갖고 우리 병원의 원훈인 백애·인화·노력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다. △우



◇박애·인화·노력은 이 병원의 운영이념인 동시에 환자와 지역주민들에 대한 직원들의 마음가짐이기도 하다. 사진은 이 병원 원훈(▷)과 병원기(△)



리는 항상 나의 병원이란 주인의식을 갖고 창의와 혁
식으로 항상 새로운 병원, 친절한 병원, 꿈이 있는
병원으로 창조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다. △우리는
모두가 한가족처럼 서로 존경하고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라도 유언비어를 금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다」는 신조를 매일 같이 가슴속
깊이 되새기며 환자의 진료업무에 임하고 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근무자세

병원의 신조는 이 세가지외에도 「△우리는 병원창
설자 신영순원장님을 정점으로 일치단결하여 정직·
성실·근면한 마음을 생활의 신조로 정하고, 명랑하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다. △우리는
자기직업에 높은 궁지를 가지며 항상 생각하고 연구
하며 실천하는 의료인으로서 우리병원을 이 지구촌에
서 가장 훌륭한 모자전문병원으로 성장, 발전케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다」로 이어지고 있다.

병원 전직원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환자에 대한

희생과 봉사정신의 바탕이 되고 있는 이 다섯가지 신
조에 내용들은 하나같이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다」는
말로서 끝을 맺고 있다. 이 말은 극히 평범하면서도
그 내면에 수없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 시작이며 또한 끝이기 때문이다.

임산부를 위한 건강교실과 교육실시

신영순병원의 모든 임직원들은 이같은 병원운영목
표와 신조아래 동일규모의 다른 어떤 병원들보다도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 첫번째가 조산사 수습의료기관으로서 79년이래
3백여명의 조산사를 양성 배출했으며 75년에 어머니
교실을 개설, 지금까지 진료지역권내 어머니들의 산
전산후교육 및 임산부체조실습, 신생아영양 및 그 취
급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진료의 질적 향상과
합리적인 병원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임상스텝 및 직
원들의 해외시찰이나 단기연수교육을 실시하여 나름



◇모자전문병원으로
40여 신생아 병상을
갖추고 있다.
이경호진료원장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대로 교육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자궁암등록제도를 마련, 정기진단과 정밀검사로 자궁암을 조기발견토록 예방과 건강관리지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임산부등록제도도 마련하여 산모들의 산전산후 건강관리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적극적인 가족계획사업을 벌여 정부의 인구억제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산모들을 위한 태교음악회나 지역내 어린이들을 위한 사랑의 대잔치를 개최하는 등 환자진료는 물론 지역내 발전을 도모하는 많은 사업을 펴고 있다.

모범적인 운영으로 각종 표창받아

申英順원장은 『환자진료니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이 모든 사업들은 전직원들의 동적인 자세가 큰 원동력이 됐다』고 말하고 있다.

申원장의 이같은 말처럼 병원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직원 모두의 가족의식 또는 주인의식이다. 그래서 직원들의 복지향상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제한된 공간으로 활용이 불가능했던 식당을 과감히 개수하여 직원들이 쾌적한 분위기속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조회를 만들어 직원들의 후생복지향상 및 지속적인 저축장려로 경제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매년 연말에

직원들을 위한 송년잔치를 열어 지난날에 대한 반성과 병원발전을 위한 창조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합창반·등산반·미화반 등 취미클럽을 운영, 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申英順원장을 정점으로한 이 병원 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로서 신영순병원은 보사부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의료보호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실적 우수병원표창을 받았고 안양세무서로부터는 우수납세자표창을 받았다. 또한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도 진료비심사 결과에 따른 전국우수병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모자전문병원으로서의 시설 및 장비

신영순병원은 지난 65년 5월 申英順원장이 현재의 병원자리(안양시 안양동 674-179)에 부인과의원을 개설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79년 9월 세차례에 걸쳐 병동을 증축했고 3차증축에 앞서(79년 3월 14일) 모자보건전문병원의 개설허가를 취득, 산부인과와 소아과·임상병리과·방사선과·초음파실 등을 설치했다. 이때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실도 신설했다.

申원장은 이어 84년 1월 경영협의회를 설치하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병원경영의 혁신을 꾀하는 한편 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병원경영의 혁신을 꾀하는 한편 84년 5월에는 OSM컴퓨터를 도입, 병원행정의 전산화

◇전국민의보 실시후
병원경영의 어려움
이 적지 않지만 바
람직한 의료기관상
정립을 위해 전 직
원이 힘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수술장면.



시대를 구축했다.

현재 이 병원은 대지 1백49평에 연건평 4백93평의 5층건물과 50병상의 입원실, 40병상의 신생아병상 및 20대의 신생아보육기 등을 갖추고 있으며 주요장비로

서 전자동혈구계산기, 생화학분석기, 소변자동분석기, 자궁암검사용 현광현미경, 태아감시장치, EKG모니터, 초음파검사기, 콜포스코피, 복강영 등 모자전문병원으로서 필요한 모든 의료장비를 골고루 설치해 놓고 있다.

공익기관으로서 바람직한 의료인상 구현

이렇듯 신영순병원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병원을 운영해온으로써 77년이후 의료보험이 계속 확대되고 정부의 저수가정책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부단히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런데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이후 병원 수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이 병원관립책임자의 귀뜸이다. 잘못된 환자본인부담률과 진료권설정이 주된 요인이라는 것.

그러나 막상 申英順원장은 「환자수를 늘리려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의료사고를 줄이고 환자에게 보다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인력과 시설에 맞게 환자수를 조절하고 있어 수의면에서 다소 차질을 빚고 있다.」며 「아무리 개인의 소유라고 해도 병원은 어디까지나 공익기관인만큼 수입에 연연하기 앞서 사회가 요구하는 의료인상을 구현하는데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현재 의정당상에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 모든 의료인들의 권익을 두 어깨에 짊어진 선량으로서의 의연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



◇임산부들을 위한 태교음악회도 열고 있다.